2000年度行政事務監査　交通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交通放送本部

日時　2000年6月24日(土) 午前10時
場所　交通委員會會議室

(10時 25分 監査開始)

○委員長 朴謙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제36조 및 제38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 서울特別市議會定例會의運營에關한條例에 의하여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그리고 申俊雨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통방송본부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 條例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

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交通放送本部長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宣 誓)

○委員長 朴謙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交通放送本部長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께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부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실 때 그 간에 죽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요점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존경하는 朴謙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입니

다.

제18회 정례회 기간중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교통방송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실 사항과 정책적 대안은 방송 운영에 충실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교통방송 개국 10주년 기념행사에 朴謙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전 직원이 제2의 개국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교통방송의 그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編成局長 유남수, 交通情報局長 張明男, 放送審議室長 朴輔隆, 總務部長 柳在興)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交通放送本部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여기에서 추가해서 저희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당면한

현안문제를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송신소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도 대부분 거기에 송신소가 있습니다만, 서울타워가 체신공제조합에서 운영해 왔는데 소유권이 YTN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YTN이 KBS를 비롯한 모든 방송국한테 임차료 인상을 요구하는데요, 교통방송은 526%로 좀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KBS, MBC, SBS와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50%, 30%도 아니고 526%라는 것은 좀 지나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책 중에서 이렇게 계속 조정이협조가 안 될 경우는 관악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악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했을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남산이라고 하는 지근거리에 있는 것하고 교통방송의 상징성 때문에 남산에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관악산으로 옮겼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하고 또 거기 지형이 좋기 때문에 방송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그런 장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관리실이라든지 시 예산 쪽하고 협의도 하고 여느 방송국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태로 하

도록 하겠습니다.

金玉源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 받으실 때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源 委員; 네, 金玉源委員입니다.

교통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交通放送本部를 交通放送公社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경위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본부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交通放送本部長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나 보도에 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방송의 광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는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할 수 없고 현재 협찬광고로 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11억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의 세입증가나 또 세입증가로 인한 더 발전적인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할 계획은 있는지, 상업광고로 해서 수입이 더 많다고 하면 그러한 상업광고를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 交通放送本部長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東奎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林東奎委員입니다.

申俊雨 本部長님이 오셔서 지금 교통방송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만 어려운 IMF 때 오셨기 때문에 구

조조정을 하면서 잡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능력보다는 지금 우리 申俊雨 本部長님 인맥에 의해서 인맥이 있는 사람은 나갈 때도 좀 제외되고 들어올 때도 지금 현재 신규채용도 하고 취직현황도 있지만 신규채용되는 사람들도 능력보다는 인맥쪽으로 채용한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이나 출연자도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선택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에 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협찬업체에서 지금 2,000만원 미수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찬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받기에 미수금이 생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敬愛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愛 委員; 우선 방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보니까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계신 데 보니까 프로그램을 세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대통령도 신지식화를 부르짖고 계시고 교통방송도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교양프로그램 속에 정보화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일반 우리 경제를 이끌

어 나갈 수 있는 정보화에 관해서도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 줘서 국민들이 의식을 더 고취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모니터 운영분석을 보면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정보자문위원을 선정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신규로 된 교통단체 민간업체에 보니까 택시조합이사장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우리 교통방송과 관련이 있는 업자들이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로티스는 전자지도를 판매하는 대표이사이셨고, 그 다음에 SK는 LG와 같이 I.T.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보고 선정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朱世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世晩 委員; 朱世晩委員입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양질의 교통정보와 첨단방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신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제휴하여 수도권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전자지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지도를 교통방송에서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터넷과 연결하여 일반시민들이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

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방송의 부대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방송은 9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방송시간이 22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9명의 인원은 너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을 더 증원하여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청취자의 반응을 다각도로 점검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원의 증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成大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成大 委員;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위원들의 자료신청시에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 교통이 두절되는 곳도 있고 또는 요새 야간에 복공판을 걷어내느라고 일방통행을 시키고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

7월말 7호선 개통을 하기 위해서 복공판 걷어내고 상당히 공사 진척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몇 시간씩 서서도 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정보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을 교통방송이 협조해서 하면, 일방통행도 하고 또 차단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왔다가 돌아서 회차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6호선도 남아 있고 7호선도 잔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멘트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시내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震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委員입니다.

좋은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이번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원고료가 매당 5,300원 내지 5,700원 이상인 타 방송사에 비해 아주 낮은 상태로 돼 있고 또한 작가협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고료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적은 원고료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 오시기 위해서는 방송국장께서나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해서 좋은 원고를 얻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고료 인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인상할 때까지는 임원님들께서 더욱더 좋은 원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작가에게 좀 더 사정하고 좋은 원고를 부탁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 서울시 재정형편이나 또한 교통방송의 형편을 봐서 좋은 원고를 제출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임원님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꼭 원고료 인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네, 李敬愛委員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愛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민편익을 위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확대하시는 案을 갖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 보완의 일환으로 교통안전과 운전상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셔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인터넷 사이트도 만약 활용해서 청취자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면 다양한 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정보에 관한 것과 운전상식에 관한 퀴즈 같은 것들을 매달별로 넣어주면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보고드리겠습니다.

金玉源委員님께서 교통방송 공사화 계획에 따른 지금까지의 과정, 진행상황이라든지 본부장의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관계에서 보도계획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광고 세입증가를 위한 확대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사화 계획은 저희가 서울시 산하에 있고 또 상위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속된 부서로서 저희 소신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개관적인 시각으로 어떤 당위성,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源 委員; 거기는 서울시 산하 기관이고 또 상위부서가 있다는 것은 市長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交通管理室長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서울시도 그렇고 교통관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소속된 부서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송의 큰 흐름이 종래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송, 관료와 통제의 방송에서 큰 흐름이 공익과 공영을 위한 방송, 자율과 창의를 위한 방송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또 시민에게는, 청취자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향상 이런 쪽으로 방송의 큰 흐름이 가고 있다, 그 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생각은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더라도 그것은 제도와 법적, 외형적으로 공사화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울시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서울시의회의 감시감독, 감사를 받는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 시민과의 유대는 큰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공사화가 되면 형식적으로 공사화가 된다 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이 얻는 것은 크다.

즉 우리가 외부에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우리가 공사화가 되었다 해서 많이 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을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이렇게 서울시와 의회에서 방향을 정해 주신다면 준비하는 단계는 지금부터 약 빠르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내년 2001년부터는 시행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조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인력에 관한 문제, 예산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고 교통방송이 공사

화가 되었을 때 재정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교통방송 저희는 우선 KBS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KBS는 시청료로 하는 돈도 받고 있고 또 광고로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0%로 봤을 때 교통방송도 이 모델대로 하면 되겠다, KBS는 국가의 이익적인, 국가 주도적인 중앙정부의 공사고, 교통방송은 시민 이익적인, 지방정부의 공사화다.

그래서 우선 단계별로 자립을 추진할 때까지는 KBS가 그러하듯이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감소해 가고.

아까 또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광고를 저희가 점점 확대해서, 다만 교통방송이 공사화가 되면 상업광고를 얼른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라든지 광고공사에서 동의해 주는 그것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를 증대시키고 서울시에서 오는 재정의 부담을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그러나 서울시 재정의 지원은 계속 받는 것으로. KBS 모델을 저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사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저희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보도라든지 행사는 저희가 교통방송의 위상과 정체성이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한 기상이라든지 환경이 중심입니다만 시민에 대한 생활편익, 생활정보 그것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적인 큰 목표가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위

상과 정체성을 거의 뛰어넘다시피 해서 통일관계 프로그램을 열심으로 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저희가 남북한 역사관의 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강의도 자체교육도 했고, 교통대책도 세미나도 했고, 후반기에는 평화대행진이라든지 또 아나운서 부서에서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 이질화에 대한 극복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해 주는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던 금강산관광 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과거의 냉전사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민족적인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일 지향적인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방송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源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의향은 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통방송의 가청지역이 평양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아닙니다. 현재 서울, 경기…….

○金玉源 委員; 아니,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파수를 늘리고 가청지역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가청지역이 평택 저기까지 더 내려가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으로는 지금 개성, 해주 정도까지도…….

○金玉源 委員; 아니,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통일을 대비를 해서 우리 교통방송을 넓혀가는 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것

입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통일시대에 대비한 방송대책 해서 한번 저희가 연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시대의 방송대책이나와야 하고 그 개념 내에서 교통방송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 교통방송은 그 방송 자체가 특성상 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 경기에 충실하고 이것을 네트워크로 해서 한다면 평양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차차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金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광고의 세입증가를 위한 확대계획 중에서 상업광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특히 공사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증대를 위해서 협찬광고를 상업광고로 전환해야 되고, 이것은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광고공사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적극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하여튼 상황이 변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林東奎委員님께서 질의하신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잡음이 있었고, 인사에 대한 인맥이 본부장 내지 어떤 특정인 중심으로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와 저희들한테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교통방송에 있는 공인으로서, 林委員님 지금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문제에 따른 잡음이라든지 본부장 중심으로 한 인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또 정규직원도 그렇지만 진행자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교통방송이라는 공영방송에 몸 담고 있는 간부로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IMF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결과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최선을 다한 인사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의 착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이 고뇌도 하고, 비록 한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어떤 시의 인사방침이라든지 행자부의 인사방침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철저히 준용해서 했었습니다.

특히 교통방송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90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별정직 내지 전문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방침 및 기준이 있습니다만, 계약을 안 하면 다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林東奎 委員;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럴 리는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어떤 인맥이나 정실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이 되고 또 그러한 편파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교통방송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한 번 다시 해 주시죠.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지금까지 해 왔던 공인적인 입장,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 공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방송의 내규, 또 시의 인사에 대한 원칙 그런 원칙을 준용해서 했고, 개인적으로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 나가는 것이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구조조정과 재계약에서 나갔던 사람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인간적인 고뇌 그것은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통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철저히 체크해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에 대한 문제도 저희는 지금 방송위원회 산하에 있고, 방송협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나 PD협회는 있기 때문에 교통방송은 PD협회가 대단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처음에는 강력히 모든 것을 시시콜콜 관여했습니다만 프로그램 개편이라 든지 특집이라든지 특히 진행자 채용에 있어서는 국장 내지 부장에게 거의 일임을 했고, 국장, 부장도 말씀드린 PD협회의 PD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는 100% PD협회 중심으로 해서 나온 의견, 또 국장, 부장들에 의한 간부의견을 다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위층이라든지 특정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능력과 공인으로서의 자질 이것은 금방 1주일 내에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찬 미수금에 대한 것은 아까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미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敬愛委員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중에 정보화계획,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교통방송이 정보중심의 방송,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와 시민들한테 정보 서비스, 특히 중소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류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정보 프로그램도 5시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지가 여러 가지 첨단정보라든지 통신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더욱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자문위원을 비롯한 여기에 어떤 특정업체들하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생각하기에 로티스라든지 LG와 관계되는 쪽에 있습니다만 선정기준은 저희가 전문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업체에 대한 시각보다도 전문성을 기준, 시청자위원회과 교통자문위원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교통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에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오해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교통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편익을 위한 생활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인터넷 교통방송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어느 부분에서는 교통방송의 인터넷방송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 확대해서 인터넷방송을 해 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朱世晩委員님께서 휴대폰이라든지 교통정보를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교통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지도 구축이라든지 교통정보 데이터를 별도 통신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더욱 반영해 가지고 교통정보 구축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해서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은 제가 보고드릴 때 10명이라고 했는데 잘못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9명인데 심층분석을 위해서 증원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을 세워서 몇 사람 보강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인 심층분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成大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교통방송의 자세, 태도의 문제에 감사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소홀히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준비를 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호선 전철개통을 전후해서 주변의 교통체증이 심한데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획을 긋는 지하철 2기 7월 개통을 앞두고 지하철 공사가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교통정보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載震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방송 작가, 스크립터에 대한 원고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300원 내지 5,700원,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가에 대한 것은 큰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부가 있고 PD, 기자, 아나운서, 이렇게 방송제작 요원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작가와 진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좌우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교통방송의 제작비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안에 원고료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KBS, MBC라든지 공중파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낮지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근접하도록 그렇게 해서 인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규정이 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아끼느라고 그 하한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고료의 상·중·하가 있다면 선을 높여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李敬愛 委員; 李載震委員님 부분 추가질의 할게요.

○委員長 朴謙洙; 네,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愛 委員; 李載震委員님이 질의하신 작가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통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애청하는 프로그램을 죽 나열하신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야곡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청취율이 23.5%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작가선생님이 아마 방송협정에 의한 작가기준법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작가선생님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원고료가 높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9595쇼 담당하는 파트까지 그 두 파트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말씀드리겠습니다.

9595쇼는 한국의 라디오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볼 때 MBC의 이종환 최유라 프로그램이 1위이고 9595쇼가 대단히 인

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명길 씨라는 남자분이 장기간 글을 써왔습니다.

유능한 글을 쓰고 많이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락성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보도 전달하고 교통방송에 대한 품위를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우수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KBS와 비슷한 원고료 제작비 규정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야곡은 이것도 텔레비전 매체들이 뉴스를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채널의 특성을 강화하자 해 가지고 정반대의 오락성도 있는 중년 이상의 추억이 곁들인 서울야곡으로 해서 서울의 문화, 역사, 과거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경희라는 작가분이 하고 있는데 이 분도 아주 우수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 매수가 많고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작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능한 최상한액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적용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李敬愛 委員;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방송을 유익하게 이끌어 나가는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는 중간급이 아니라 최대한 잘 해 줘서 더 활기차게 교통방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선생님을 갖고 비교해 보니

까 한 선생님이 2시간에 7일의 시간을 주셨고 한 선생님은 1시간에 6일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마 거기에 비례해서 원고매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돼서 앞서가는 선생님이 사실 뭐라고 할까요, 적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방송기준법에 의해서 그것도 되고 있지만 청취율이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더 좋은 방법의 제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지적하신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간은 자유조사라든지 이게 잘못하면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조사, 그래서 조명남 씨가 하고 있는데 원고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2시간이나 1시간 가지고 원고매수가 정해지지 않고요. 비록 1시간이라도 원고매수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李敬愛 委員; 그러면 저희가 혼돈이 오지 않게끔 시간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부분은 없애주시면, 그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는 그것 가지고 통계낼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나 다른 기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저희 총무, 경리가 있고 예산집행하는 데가 있고 PD들이 제작비 관련해서 원고매수를 대단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聖泰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泰 委員; 金聖泰委員입니다.

사정상 행정사무감사에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질의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交通放送本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본위원은 사실상 공익적인 기능의 한계를 가진 가운데 TBS 교통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방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MBC나 KBS, 어느 기타 지방 방송보다도 TBS 교통방송이 전체적인 방송짜임새나 효율적인 방송운영은 그나마 공익적인 기능 한계의 틀 속에서 상당히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간부 전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위원이 交通放送本部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 중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99년도부터 2000년 5월까지 행정소송현황 및 계류 승·패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 해고 무효확인 등에 대한 청구소송 1건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방송본부에서 불가피한 해고의 사유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바로 법적으로 끌고가지 말고 바로 이런 경우에는 勞動委員會法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희정 씨는 해고 무효확인, 즉 부당한 해고라는 것을 자기가 지적하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바로 勞動委員會法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로 가서 법정에서 판결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정판결은 빠르면 1년, 길면 2년, 3년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종사원의 해고 무효확인 이런 청구소송이 법정으로 몇 년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불가피한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勞動委員會法을 통해서 원고, 피고의 개념을 떠나서 서울市長, 그리고 원고, 신청인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 빠르면 3개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쪽이 만일 원고가 패소해서 상소를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면 불과 3개월, 길어야 6개월이면 이런 해고 무효확인, 즉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법적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가고 있고, 또 여기에서 1심이 끝나고 나면 또 재소,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존 노조가 없고 하지만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에서도 설사 해고사유가 발생된다 하면 서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 갑니다.

勞動委員會法에 의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명령을 받는 부분은 교통방송본부도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단돈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해고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이 당사자도 비용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기능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여기 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어떤 해고의 조건을 제대로 교통방송본부가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관리기준법상의 제81조에 의한 앞으로 그런 법적인 기준을, 또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예고기간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어떤 기준에 교통방송본부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상황실과 통신원간의 호출 내지는 통신시스템을 1 대 1 시스템을 갖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방면으로.

즉 상황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꺼번에 다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합통신시스템을 갖추어서 지금 현재 방송진행요원에게 이정보가 제공되고 또 방송이 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황실과 통신원간에 1 대 1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지.

만일 1 대 1 시스템을 한다면 이것은 교통이라는 것은 A라는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사고가 있더라도 그 여파는 B지점, C지 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B지점, C지점과 같이 상황실이 한번에 통화, 즉 통신이 되고 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신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특히 "뮤직 투 뮤직" 해서 아마 10시부터 황인용 씨가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12시부터 장유진 씨가, 이 타임은 상당히 기존 교통 혼잡한 시간이 아닙니다만, 운전자들이 상당히 즐겨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정부터 "사랑이 가득한 밤에", 물론 박원

웅 씨도 대단한 진행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 시간은 상당히 업무에 지치고 피로한 가운데 때로는 밤의 정적 속에서도 자기만의 추억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조용하고, 올드팝송이라든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하루의 일과를 때로는 반성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이 가득한 밤에"는 다른 모든 일과를, 특히 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루종일 지친 사람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안도 주고, 또 그런 가운데 하루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진행 분위기와 음악도 그런 측면으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尹汝亨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 委員; 尹汝亨委員입니다.

교통방송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한 것을 보면, 또한 교통방송 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도 77.9%로 나왔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듣지 않는 방송을 77.9%로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변경해서 듣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謙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죠?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2, 3분만 시간여유 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金聖泰委員님께서 자료요구와 또 충고의 말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자료하고 계약직공무원 해고 무효소송 문제, 바람직한 방향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산성을 위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피로감도 덜고, 쉽게 분쟁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가 오히려 그런 절차가 좋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는 신분이 일반노동자가 아니고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계약직이지만 서울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하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金聖泰 委員;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한희정씨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결국 교통방송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런 노동위원회보다는 행정소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 피동적으로 응해서 현재의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지금 6차 변론까지 지나고 7월 6일 최종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金聖泰 委員; 1심이죠.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네,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통신원들이 3,400명 있고 이 중에서 방송통신원이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1대 1입니다.

1 대 1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고, 그러나 염려하시는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또 1 대 1이면서도 종합적인 그런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방송을 직접할 때는 1 대 1로 하지만 전체 듣고 쌍방향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복합적인 통신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하는 쌍방향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聖泰 委員; 답변중에 말이에요, TRS시스템은 상황실에서는 불특정 통신원을, 물론 몇 사람을 호출할지 모르지만, TRS시스템은 상황실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전 통신원이 다 통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TRS시스템이 요즈음 상당히 개발되어서 통신회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교통방송본부에서 딱 제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만약 통신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상황실의 진행내용을 다 들을 수 있다고요.

다 듣고 그 중의 누구라도 상황실에다 교통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TRS시스템이 나와 있거든요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단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金聖泰 委員; 1 대 1로 계속 언제 언제 확인하느냐 이것이에요, 시간적으로.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1 대 1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말기 5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남산과 관악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기지국이 있는데 그렇게 TRS를 지금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金聖泰 委員; 다방향으로?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네.
○金聖泰 委員;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네, 하고 있습니다.
○金聖泰 委員; 1 대 1이 아닙니까?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네.

그 다음에 金委員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프로그램 진행, 심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9시 이후에 황인용, 장유진, 박원웅 씨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대에 맞고, 대상에 맞고, 분위기에 맞게, 또 정서에 맞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자를 선정하고 내용을 충실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그렇게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선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소재라든지 음악선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委員님께서 프로그램 만족도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통방송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들, 직업운전이 됐든 자가운전이 됐든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핸들가족은 교통방송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적적으로 교통방송으로 듣도록 하자,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일반직장이나 가정에서도 교통방송을 많이 듣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듣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너무 오락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 대로 좋은 정보도 주면서 내용도 충실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편성방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汝亨 委員; 제가 지금 요구한 것은 안 듣는 프로티지가 제일 높은 것이 프로그램 중에 남산의 아침 1부, 2부가 77.9%는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산의 아침 1부, 2부를 청취자들이 안 듣는 것이 80% 가까이 되면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빼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보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22시간 하고 있고 월드컵이 돌아오면 24시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의 문을 여는 시간하고 제일 마지막 시간은, 특히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은 저희가 차분하게 분위기를 잡아가야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종의 테스트 패턴 같은 그런 음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입니다.

그래서 아마 MBC라든지 KBS, 이런 방송도 그 청취율이 지극히 낮습니다. 교통방송이 약 44%, MBC가 35%, KBS가 10%, SBS가 5%, 나머지는 전체를 합하더라도 1%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아침시간대는 영점 몇%대로 죽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통계숫자가 낮게 나옵니다만 방송청취흐름의 패턴이 아침시간은 대단히 낮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편성청취 경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金聖泰 委員;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TBS 황인용 씨 10시부터 하죠? 그 10시부터는 거의 30대 중반이후는 다른 MBC FM이고 KBS FM이고 게임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젊은층 애들 20대 초.중반, 10대들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대 중반 이후는 거의가 이 TBS 방송을 듣는다, 그렇다면 완전히 굳혀버리자 이거죠.

○委員長 朴謙洙; 金聖泰委員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내용 중에서 교통방송 뉴스 청취율이 99년 대비 9.7%가 향상해서 72.4% 청취한다는 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데 온갖 지혜를 다 짜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통방송 개국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金玉源委員님이 交通放送公社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확고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셔서 명실상부한 우리 교통방송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放送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또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放送本部長 이하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45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朴謙洙　尹汝亨　趙成大　金聖泰

金玉源　金平城　金喜甲　李敬愛

李載震　朱世晩　林東奎　安秉昭

○專門委員

金泰鎬

○被監査機關參席者

交通放送本部長　　申俊雨